<표> ’12년 1분기~’13년 1분기 콘텐츠업체(상장사) 수출 변동

(단위 : 억원, %)

구분	2011년	2012년					2013년	
	2011년 (전년대비)	1분기 (전기대비)	2분기 (전기대비)	3분기 (전기대비)	4분기 (전기대비)	2012년 (전년대비)	1분기 (전기대비)	1분기 (전년동기)
게임	7,980.3	2,237.9	2,034.8	2,086.6	2,169.1	8,528.4	2,335.7	4.4%
	(42.2%)	(−19.8%)	(−9.1%)	(2.5%)	(4.0%)	(6.9%)	(7.7%)	
지식 정보	n/a	n/a	n/a	n/a	n/a	n/a	n/a	n/a
출판	124.1	15.7	16.3	23.1	117.2	172.3	43.5	177.1%
	(173.3%)	(−81.7%)	(3.8%)	(41.7%)	(407.4%)	(38.8%)	(−62.9%)	
방송	1,572.0	458.9	573.6	516.6	450.2	1,999.3	464.8	1.3%
	(80.3%)	(19.4%)	(25.0%)	(−9.9%)	(−12.9%)	(27.2%)	(3.2%)	
광고	n/a	n/a	n/a	n/a	n/a	n/a	n/a	n/a
영화	105.5	122.4	50.2	122.8	75.5	370.9	34.4	−71.9%
	(653.6%)	(169.6%)	(−59.0%)	(144.6%)	(−38.5%)	(251.6%)	(−54.4%)	
음악	874.3	324.1	371.8	550.6	571.4	1,817.9	391.5	20.8%
	(93.1%)	(−36.6%)	(14.7%)	(48.1%)	(3.8%)	(107.9%)	(−31.5%)	
애니메이션/ 캐릭터	790.0	132.0	200.9	199.2	208.6	740.7	154.0	16.7%
	(12.3%)	(−39.5%)	(52.2%)	(−0.8%)	(4.7%)	(−6.2%)	(−26.2%)	
합계	11,446.2	3,291.0	3,247.6	3,498.9	3,592.0	13,629.5	3,423.9	4.0%
	(48.7%)	(−18.4%)	(−1.3%)	(7.7%)	(2.7%)	(19.1%)	(−4.7%)	

1) 게임 중 'CJ 인터넷'은 ’11년 3월 'CJ E&M'으로 합병됨에 따라 ’11년 1분기 이후는 'CJ E&M' 게임부문 수출액을 적용. 'NHN'은 실적보고서상 ’11년 1분기부터 수출액 대신 해외사업장 매출액을 발표해 분석에서 제외

2) 지식정보는 산업의 특성상 내수를 중심으로 영업활동이 이뤄지므로 수출이 발생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

3) 출판 중 '대교', '능률교육', '예림당', '이퓨처' 사업보고서에서 수출 발생

4) 방송 중 'CJ오쇼핑', 'CJ E&M', 'SBS콘텐츠허브', 'iMBC', '초록뱀', '팬엔터테인먼트', '삼화네트웍스', ‘키이스트’ 사업보고서에서 수출 발생

5) 영화 중 '미디어플렉스', 'CJ E&M'에서 수출 발생

6) 음악 중 'CJ E&M', 'SM엔터테인먼트', ‘네오위즈인터넷’, '소리바다', 'JYP엔터테인먼트', 'YG엔터테인먼트'에서 수출발생

7) 애니메이션/캐릭터 중 '코코엔터프라이즈'와 '스템싸이언스'는 업종변경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. '오로라월드'는 ’13년 1분기 수출액데이터 부재로 ’12년 수출액 비중 적용. 바른손은 ’13년 5월 31일 현재 실적 미발표로 분석 제외

□ 2013년 1분기 콘텐츠 업체 수출 동향

◉ 콘텐츠산업 관련 상장사 ’13년 1분기 수출액은 약 3,42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.0% 증가했으며 전분기대비 4.7% 하락

– ’10년 2분기부터 전분기대비 상승기조이며 ’11년 1분기 이후 ’12년 1분기 및 2분기를 제외하고 큰 폭의 상승이 이어지다가 ’13년 1분기 들어 하락세로 반전

◉ 게임 ’13년 1분기 수출액은 약 2,33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.4% 증가했으며 전분기대비 7.7% 상승. ’12년 1분기 전분기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전반적

으로 상승세 유지

- ’13년 1분기 게임의 전체 콘텐츠 상장사 수출액 중 비중은 68.2%로 ’12년 1분기(68.0%) 대비 0.2%p 상승

- 대형업체 중 네오위즈게임즈의 ’13년 1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1.6% 증가했으며 기타 대형업체들은 전년동기대비 감소. 이는 스마트게임 및 대형온라인게임 등의 해외 시장에서의 가시적인 성과가 다소 미흡한 것. 액토즈소프트는 ’12년 2분기 이후 전년동기대비 다소 큰 폭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’13년 1분기는 전년동기대비 27.4% 감소

  ※ 엔씨소프트의 수출액은 ’11년 2분기부터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’13년 1분기는 전년동기대비 37.1% 감소

- 중소형 업체 중, 컴투스, 게임빌 등 2개 업체는 ’11년 4분기 이후 다양한 신작 스마트게임들의 흥행 호조 및 해외 수요증가로 ’13년 1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고성장 기록

  ※ 컴투스 및 게임빌은 스마트기기의 이용 증대 등 스마트게임 콘텐츠 수요 인프라 확대에 따른 게임콘텐츠 이용 패턴러다임 변화로 ’11년 1분기 이후 큰 폭의 수출증가세 지속. 컴투스 및 게임빌의 ’13년 1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19.8%(164.3%)[1], 97.2%(574.5%) 증가

  ※ 한빛소프트의 ’13년 1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5.8% 증가

- 게임의 수출은 전분기대비 ’10년 2분기부터 ’11년 4분기까지의 상승세가 ’12년 1분기와 2분기에 다소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으나 ’12년 3분기부터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회복 추세. 향후 게임 콘텐츠 소비 패러다임의 모바일화 및 이에 부응하는 고성능 스마트기기의 출시 등이 지속되면서 게임 수요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. 이에 완성도를 확보한 스마트게임 개발사들을 중심으로 해외수출 확대 예상

  ※ ’10년 3분기에서 ’12년 4분기까지 전분기대비 각각 2.3% 상승, 12.1% 상승, 5.7% 상승, 5.3% 상승, 2.9% 상승, 55.7% 상승, 19.8% 하락, 9.1% 하락, 2.5% 상승, 4.0% 상승

1) 2012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 수출액 성장률

◉ 출판 ’13년 1분기 수출액은 약 4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7.1% 증가했으며, 전분기대비 62.9% 하락

– ’13년 1분기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액에서 수출액 비중은 1.3%로 전년동기대비 0.8%p 상승

※ 대교, 능률교육, 예림당, 이퓨처의 ’13년 1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30.0% 증가, 22.7% 감소, 47.4% 감소, 19.2% 감소

– 출판은 ’10년 2분기 이후 전분기대비 등락세를 보이다가 ’12년 2분기 이후 상승세로 이어졌으나 ’13년 1분기 들어 큰 폭의 하락 기록

◉ 방송 ’13년 1분기 수출액은 약 46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.3% 증가했으며 전분기대비 3.2% 상승

– ’13년 1분기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액에서 수출액 비중은 13.6%로 전년동기대비 0.3%p 하락

※ CJ오쇼핑의 ’13년 1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48.9% 증가

※ CJ E&M 방송부문의 ’13년 1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.8% 감소

※ 초록뱀미디어는 독립제작사로서 ’13년 1분기 수출액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850.0% 증가했으며 팬엔터테인먼트는 전년동기대비 91.7% 큰 폭 감소

– 방송은 ’11년 1분기부터 ’11년 4분기까지 전분기대비 하락을 보이다가 ’12년 1분기 이후 큰 폭의 상승으로 전환되었으며 ’12년 3분기부터 전분기대비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’13년 1분기 들어 약간 상승

◉ 영화 ’13년 1분기 수출액은 약 3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1.9% 감소했으며 전분기대비 54.4% 큰 폭 하락

– ’13년 1분기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액에서 수출액 비중은 1.0%로 전년동기대비 2.7%p 하락

※ CJ E&M 영화부문의 ’13년 1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72.2% 감소. 미디어플렉스는 영화투자배급사로서 ’13년 1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6.4% 감소

– 영화는 ’11년 2분기부터 전분기대비 상승세였으나 ’12년 1분기 이후 다소 큰 폭의 등락세이며 ’12년 4분기부터 하락세

◉ 음악 ’13년 1분기 수출액은 약 39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.8% 증가했으며

전분기대비 31.5% 하락

– ’13년 1분기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액에서 수출액 비중은 11.4%로 전년동기 대비 1.6%p 상승

※ CJ E&M 음악부문, 소리바다, YG엔터테인먼트의 ’13년 1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87.1%, 73.8%, 322.8% 증가했으며, 수출액 규모 측면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, YG엔터테인먼트 등이 음악 수출액 증가를 견인

– 음악은 ’10년 2분기에서 4분기까지 하락세. ’11년 1분기 이후 ’12년 1분기를 제외하고, 전분기대비 상승세가 ’12년 4분기까지 지속되었으나 ’13년 1분기 들어 큰 폭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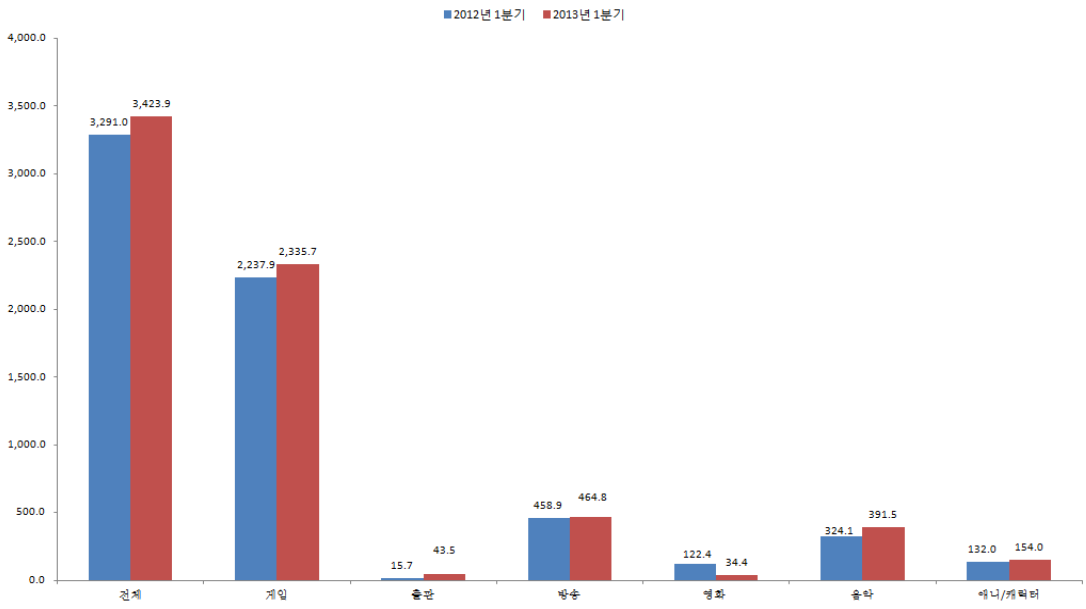
◉ 애니메이션/캐릭터 ’13년 1분기 수출액은 약 15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.7% 증가했으며 전분기대비 26.2% 큰 폭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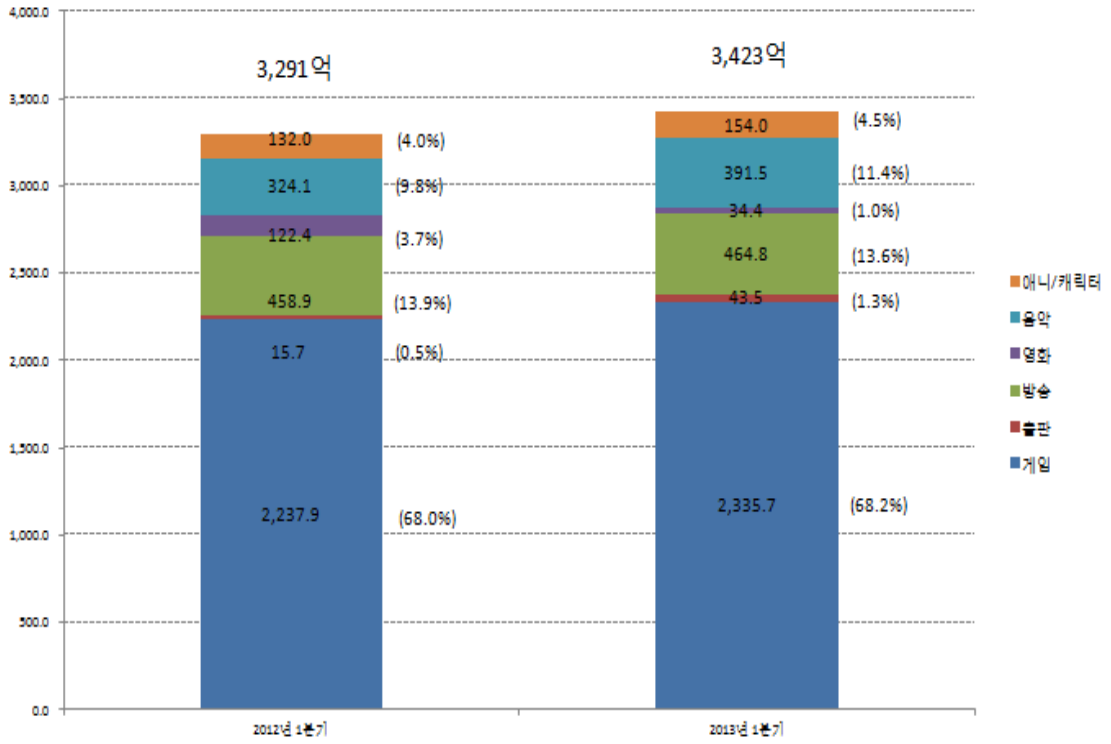
– ’13년 1분기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액에서 수출액 비중은 4.5%로 전년동기 대비 0.5%p 상승

– 애니메이션/캐릭터는 ’10년 1분기부터 전분기대비 등락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’13년 1분기는 큰 폭 하락

<그림 1> ’12년 1분기 vs ’13년 1분기 콘텐츠업체(상장사) 수출 변동

(단위 : 억원)



<그림 2> '12년 1분기 vs '13년 1분기 콘텐츠업체(상장사) 수출 누적

(단위 : 억원)